

# 이제 뭘니까?

올 총회를 마친 인쇄문화협회, 인쇄연합회 등 인쇄단체들은 변화와 도전의 자세로 지식산업의 중심에 서기 위한 각오를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쇄인들이 한데 뭉쳐 공동목표를 향해 매진해야 한다는 토양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특정인이나 단체에 대한 흠집내기나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설새없이 퍼뜨리고 돌아 다니는 행위는 듣는 이를 민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인쇄문화협회와 중국인쇄협회가 교류협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상호 방문 일정도 정식 채널이 아닌 곳에서 잡음이 들리고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지난해부터 뜻있는 인쇄인들이 공식기구나 지면을 통해 단체의 역할 및 통폐합, 전문화 등을 주장하여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중에는 인쇄연구소를 연합회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최근 새로운 모임, 단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의아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물론 어느 모임이나 단체건 그 목적이야 좋은 방향을 내세우고 있겠지만 과연 이 시점에서 필요한 모임이나 단체인지 어느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는지 회의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리야 없겠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몇사람이 의기투합(?) 해서 추진하는 단체라면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단체의 힘을 약화시키고 업계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앓을까 우려된다.

1988년에 제정되어 해마다 기념행사를 해오고 있는 '인쇄문화의 날'은 인쇄인의 명절이다. 이 날은 제정당시 손보기박사, 천혜봉박사, 고안춘근교수 등 전문가 6명에게 의뢰하여 직지를 찍은 달(음력7월)은 간기에 나와있으나 발간일이 없어 이 날을 찾아 줄 것을 의뢰했지만 이들 학자들이 철저한 검증 끝에 발간일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각종 회의를 거쳐 첫 한글 금속활자로 석보상절을 인쇄한 9월14일을 지정한 바 있다.

특히 올해에는 문화협회, 연합회, 서울조합이 이 기간 공동으로 축제를 벌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므로 또 다른 기념일이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없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진정 공존공영의 기틀을 후손에게 물려 줄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할 때이다.

단체나 기관은 그 추구하는 목적이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 하는 한 영속성을 지녀도 무방하다.

그러나 단체장이나 임직원은 재직기간 동안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 함으로써 그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다음 구성원에게 이어 줄 의무와 책무를 지니고 있는 것이며 조직을 떠난 후에는 조용히 조직의 발전을 위해 후원자가 되는 것이 정상적인 길이다.

한번 흘러간 물이 물레방아를 다시 돌릴 수는 없는 일이다. <오세익·편집주간>



**단체장이나 임직원이 조직을 떠난 후에는 조용히 조직의 발전을 위해 후원자가 되는 것이 정상적인 길이다.**

**한번 흘러간 물이 물레방아를 다시 돌릴 수는 없는 일이다.**